

동굴 같까 물놀이장 같까...광양 여름여행지 인기

백운제 농촌 테마 물체험장·와인동굴+광양에코파크 각광 광양제철소 '백운산 수련원' 야외 수영장·전망데크 설치

폭우 뒤 찾아온 기록적 불볕더위에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고 있지만 정작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리며 마땅한 여름철 휴식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은 광양을 찾았다면 확 해소된다. 광양시는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여행지로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물체험장'과 '광양와인동굴' 등을 추천했다.

지난 27일 첫 운영에 들어간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물 체험장은 개장 첫날 350여 명의 입장객을 찾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물 체험장은 성인·청소년 풀, 어린이 풀, 유아 풀 등 총 4개 규모로 정글 놀이대, 덩펄 펠리컨, 해마 분수 등 동심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시설물을 갖췄다.

휴장 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매시간 40분 운영하고, 청결을 위해 20분간 휴식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이다. 어린이 2000원의 입장료가 책정됐다. 광양시민은 반값

적용된다.

유아와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수영장모와 모자, 수영복, 샌들 및 아쿠아 신발, 방수 기저귀(유아) 착용 후 입장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광양와인 동굴과 광양에코파크는 페기차 터널을 시인한 관광지로 변모시킨 곳으로 한여름에도 17~18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 최적의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 와인 동굴은 와인의 역사, 세계 와인 전시·판매장, 인터랙티브존, 오브젝트 맵핑, 미디어 파사드 등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이다.

세계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으며 은은한 와인향과 함께 발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와인 족욕도 인기다.

광양에코파크는 갯벌, 암벽등반, 화석탐사 등 도전과 모험을 자극하는 콘텐츠들로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추세에 걸맞은 가족 창의 공간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며 매표 마감은 오후 5시 40분, 연중 쉽 없이 운



포스코 광양제철소 백운산수련원 전망데크(왼쪽). 광양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물체험장.



영되고 있다.

광양제철소가 운영하는 '백운산수련원'은 워터슬라이드와 야외풀을 갖춘 야외 수영장,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매점과 샤워장,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여름철 최고 명소가 아닐 수 없다.

광양 최고 야외풀장은 매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하계 시즌 개장 기간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은 정도로 인

기가 높은 휴양 시설로 광양시 관광산업에도 보탬을 주기도 했다.

광양제철소는 수련원에 최근 백운산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야외 전망데크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광양에서는 다압면, 진상면, 옥룡면에 걸쳐 있는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이 여름철 시원함과 청량감, 백운산의 맑은 공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피서지

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물 체험장과 광양 와인 동굴 등은 온 가족이 함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라면서 "멀리 푸른 백운산이 조망되는 물 체험장에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쾌적한 와인 동굴에서 낭만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서부 농촌 살린다"...5년간 563억 투입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과 MOU 승주읍·송광면·외서면·별량면 등 의료·교육...기초생활 서비스 향상

순천시가 농촌 5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돕고 농촌협약사업을 성공적 추진키로 약속했다.

순천시는 최근 승주읍 미생물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강대성),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지부장 조상명), 순천농협(조합장 최남후),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 순천원협(조합장 채규선)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순천시 농촌협약의 성공적 추진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별 협력과 공동 노력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순천시는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서부 생활권인 승주읍,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주암면에 5년간 5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순천시와 농촌 관련기관이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기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조상명 농협 순천시지부장, 노관규 순천시시장, 강대성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최남후 순천농협조합장, 채규선 순천원협조합장.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촌 관련 5대 기관들도 기존 영농 지원 외에도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

련해 순천시와 공조하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주민과 행정,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촌 관련 기관과 협력해 순천시 농촌협약 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여수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즐겨요

2~8일 '해양소년단리갯타 워드 여수마린페스티벌' 개최

'제34회 해양소년단리갯타 워드 2023 여수마린페스티벌'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여수시와 한국해양소년단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2일 개막식에는 초대 가수 박명수, 걸그룹 원츄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해상에서 펼쳐지는 플라잉보드 공연 및 불꽃 축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5일부터는 '2023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기원 해상 퍼레이드가 박람회장 해상에서 펼쳐진다. 여수시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사전 온라인 접수로 참여할 수 있으며, 카약과 SUP, 딩기요

트 300여 대가 동시에 해상을 수놓아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행사 기간 중에는 제34회 해양소년단리갯타 수상기능경기대회와 제3회 여수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가 함께 치러져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경기도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외에도 '해양레저 체험'과 달빛 아래 화려한 조명 속에서 페달링 하는 '여수밤바다 달빛가약'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해상 퍼레이드'와 '여수밤바다 달빛가약' 및 대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oleports.or.kr:6005/home/guide/guide_application.asp)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어르신 문화체험 업무 협약

자연드림파크 공방 견학·영화 관람...자연드림씨앗재단 천만원 후원

구례지역 고령 주민들이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구례군은 지난 31일 군청 군수실에서 구례자연드림파크, 시민법인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와 '2023년 해피드림 문화체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도희 구례자연드림파크 본부장과 송병관 구례군지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고령 주민들은 8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체험하게 된다. 이들은 구례자연드림파크 공방을 견학하고, 영화 관람, 레스토랑 식사 등을 한다.

문화체험 대상은 지역 고령 주민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320명이다. 문화체험을 위한 사업



김순호(가운데) 구례군수와 김도희(왼쪽) 구례자연드림파크 본부장, 송병관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회장이 지난 31일 '해피드림 문화체험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비 1000만원은 자연드림씨앗재단이 후원한다. 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는 해피드림 문화체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참석자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구례=이진희 기자 lit@

고3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광양시, 운전면허 등 최대 30만원

광양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비용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광양시는 시비 3억2000만 원을 지역 내 9개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에 맞춰 지원하며 8월 중 학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8월1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보호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운전면허증과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한국어 능력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자격증 응시료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 지원금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학생 1명당 1개의 자격증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응시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자격증 취득 후 소수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응시료 영수증 등을 학교로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생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탁영희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의 하나로 보성군 득량면 월평마을 오봉사 가는 길에 주민이 직접 꾸민 작은 공원.

<보성군 제공>

보성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박차

135개 마을 주민 주도...공원·꽃길 조성·편의시설 설치

보성군은 올해 12개 읍·면 1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3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도 시책 사업인 '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 환경·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이 추진한 주민 주도형 마을 꾸미기 사업 '우리마을 우리가 꾸꾸는 보성 600사업'의 가치와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전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보성군 135개 마을은 마을에 작은 공원과 꽃길을 만들고, 벽화를 그려 마을 안길을 꾸미고 있다. 특색 있는 문패와 우체통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을 설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성군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 마을 활동가와 주민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별 추진단을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주민 회의를 열어 마을 기금이나 주민 기부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전남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상을 수상,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고흥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

290억 확보...도양읍 용정리 일원 150세대 행복동지 조성

고흥군이 국토부 주관하는 고흥화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업인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삶의 터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고흥화 맞춤형 주거와 복지를 함께 제공한다.

고흥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양읍 용정리 일원 2만2400㎡ 부지에 총 사업비 290억원(국비 192억원, 군비 98억원)을 투입해 150세대 규모의 고흥자 복지 공공임대주택과 헬스케어, 여가활동

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고흥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주택 건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해 2024년 국토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i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